

광명시

광명농악놀이

광명도당놀이



광명농악놀이

1. 전승지

광명시 소하동, 철산동 일대

2. 유래 및 해설

광명시 농악놀이는 450여년전부터 광명시 소하동 또는 철산동리에 연면히 전승되어 내려오는 민속놀이이다.

이 놀이는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빌기 위해 도당굿을 지내면서 뒤풀이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지만 이제는 한해를 시작하며 정월

대보름 지신 밟기와 단오 칠월칠석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광명시에 위치한 소하라는 행정구역이 몇 번씩 바뀌고 주위 생활 환경이 바뀌어 가도 주민들은 바뀔 때마

다 풍물을 치며 옛모습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민족의 맥을 이어왔다. 소하리 주민들의 인구 15,000명, 총 3,500호의 주민들은 원래 농사를 짓는 마을이다.

지금은 외지에서 올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들은 전통적 농업이외에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악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주민들이다.

옛날에는 이 마을이 영당마을로 불리우기도 했는데 조선 중기 선조 때의 이원익 정승의 신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



름이 아닌가 싶다.

농악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치 않으나 아주 오래된 것으로 이 마을이 형성된 16세기경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3. 구 성

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놀이에 가담하나 보통 한 가구에 한 명씩 가담하여 놀이패가 구성되었다 한다.

흰 바지 저고리에 행전을 하고 더거리나 쾌차를 입었는데 어깨에는 빨.노.파 삼색 띠와 머리에 꼬깔 또는 상모를 쓰기도 했다.

특히 경기농악이 다그렇지만 광명농악도 마찬가지로 무등이 많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치마 저고리에 남색쾌차를 걸치고 띠를 맨다. 또는 붉은 치마와 노랑저고리를 입기도 하고 머리에는 땡기 또는 수건을 쓰기도 한다.

그 외에는 잡색으로 양반 할멈중 포수 색시 등이 있다.

■ 농악기의 종류와 구성 인원은 다음과 같다.

쇠	6	소고	8	농기	3
징	4	채상	12	용기	3
장고	8	잡색	5	영기	2
북	6	무등	8	오방기	5

4. 줄거리

걸림패들이 대가택이나 큰 마을에서는 큰 마당에서 판 굿을 친다. 판 굿을 칠 때에는 풍물을 모두 갖추고 갖가지 기예를 다 발휘

한다.

1) 올림굿

올림굿이란 판굿을 치기 앞서 인원 및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상쇠가 먼저 소리를 내면 모두 따라 소리를 내며 판굿 준비를 하는데 이때 가락은 두마치를 친다.

2) 인사굿

덩더궁이 가락에 맞추어서 원을 만들고 인사굿을 치는데 이때 사물이 앞에 서고 소고, 잡색, 무등 등으로 원을 만든다. 가락은 갹갹 갹갹 개개갹 갹갹 하고 마지막 징소리에 맞추어서 인사한다.

3) 돌림벽구

작은 가락으로 치는데 사물이 원을 만들면 벽구잡이가 그 안에서 노는 놀이로써 옆것으로 돌며 허공잡이를 한다.

4) 당산벌림

사물은 왼편에 소고는 오른쪽에 서서 놀이가 벌어지면 간단하고 쇠놀이가 이어지고 소고 잡색 무등등 각자의 놀이가 이어진다.

5) 오방진

동서남북 중앙 다섯 마당으로 펼쳐지는 놀이로써 가락은 칠채 가락을 친다. 진을 썬다는 것은 명석 말이를 하는 것으로 사물이 앞서가며 그 뒤로 벽구가 따르며 무등은 시계 방향으로 돈다.

6) 사통백이

사물이 동서로 갈라서고 남북으로 벽구가 갈라서는 모양으로 서로 엇갈리고 원을 만들

어 노는 놀이로써 이때 가락은 잦은 가락에 놀이가 이어지며 사방에 있는 네개의 원이 하나로 만들어지면 휘모리 가락으로 바뀌며 다음 동작으로 이어진다.

7) 짹짹이긋

짹짹이가락은 경기지방의 가장 독특한 가락으로 상쇠가 동이삼채 갱지갱 갱지갱 갱지갱하고 가락을 내면 벽구잡이는 앉았다 일어나며 춤을 주고 사물도 춤을 춘다.

8) 좌우치기

상쇠가 개 개 개 ~~~ 하고 소리를 내면 사물 벽구 무등 잡색등 사열종대로 선다. 이때 휘모리를 한바탕 치고 좌우치기를 한다.

9) 개인놀이

판굿이 모두 끝이 나고 쇠, 징, 북, 장고, 벽구, 무등등 모두가 한번씩 나와서 한바탕 놀고 들어가는데 이 때에 12발 상모돌리기로 마지막 판굿의 흥을 돋는다. 이렇게 해서 개인기가 끝이 나고 판굿이 끝나면서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사굿을 치고 퇴장한다.

■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자명단

- 고중 : 정인삼
- 단장 : 구봉희
- 지도 : 이춘목, 임백규
- 연출 : 임용수

구 분	성 명
장 고	한애숙, 심은희, 김분자, 채연희, 이금숙 김영숙, 신종식, 장영업
북	현순희, 이종배, 김남숙, 석동숙, 정영애 이은숙, 정혜숙, 권정일
대 감	권정찬
대표수	이동준
색 시	김영신
중	이계월
팽가리	박은우, 유인필, 안인희, 조정희, 김수경 홍은채
징	구형서, 김성남, 민계순, 유인실
잡 색	차미연, 박인정, 김윤아, 박세이 김래욱, 김은은, 이연대, 김정희 정희경, 문미양, 이미경
무 등	박영구, 황성환, 이원주, 조경주, 권혁배 이나리
농 기	이원조, 김성준, 정현갑, 허양무
오방기	조성훈, 정호현, 송태희, 김성규, 강성만
용 기	최규삼
영 기	배한호, 박병훈
소 고	이혜훈, 박현영, 복성수, 정관영, 이견주 김행덕, 김지춘, 김광수, 정관희

광명도당놀이

1. 전승지

광명시 소하동

2. 유래 및 해설

1) 유래

광명도당놀이는 450여년 전부터 광명시

소하리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민속놀이이다. 이 놀이는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빌기위해 매년 도당제를 지내면서 주민들이 제의에 함께 참여해 소원을 비는 마을의 공동제의이자 민속축제이다.

농경민족이던 우리 한민족이 옛부터 살아온 생활사적 발자취이며 삶의 현장이기도 했던 것이다.

행정구역이 몇번이나 바뀌고 주위의 생활환



경이 바뀌어가도 소하리 주민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도당놀이를 하여 옛모습 그대로 살아 가면서 민족의 맥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2) 특 징

광명도당놀이는 도당굿의 기원 내용이 가시적으로 연출된다는 것이며 마을이 편안하고 일년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굿을 하며 전주민들이 농악장단에 맞추어 흥겨운 놀이가 펼쳐 진다.

도당굿이라는 민간신앙을 저변에 깔면서 농악과 지신밟기가 복합적으로 운영되어 연극·음악·무용의 삼자가 종합연출되는 민속놀이이다.

주민 누구나가 참여하여 함께 즐기는 민속놀이라는 특징이 있다.

만신이 도당에서 굿을하고 농악을 잡은 소수의 텃고사패 및 마을사람 누구나 이 놀이에 참여해 농경과정이나 마당밟기 또는 무감에서 함께 참여해 노래 부르고 춤추며 즐길 수 있어서 특별히 전문화된 지식이 없어도 주민이면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한 놀이여서 일치감을 갖게하는 축제적 민속놀이이다.

3. 구 성

1) 줄거리

(1) 제1과장 아랫당산 장승제

첫째과장인 아랫당산 장승제 과장은 청음 굿을 치고 마을을 벗어나 도당으로 향하는 중간쯤에서 제관, 무당, 풍물패에 의해 치러진다.

장승앞에 고사상을 간단히 차려놓고 제관에

의해 축문이 읽어지고 무당에 의해 소지와 간단한 비슨이 있은다음 풍물패들의 흐트러진 가락으로 장승을 위하는 치성이 이어진다.

이 장승 및 장승제는 이번에 도당굿 놀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 재현 된 것으로서 소하리에서 구름산 중턱의 도당터로 가는 길목이다.

옛 장승백이터에 위치했던 장승. 그리고 장승제는 그 장승 앞에서 장승제 단독으로 또는 도당굿과 함께 행하여졌다 한다.

(2) 제2과장 윗당산 도당굿

둘째과장인 윗당산 도당굿은 아랫당산에서 장승제를 마치고 당가리가 있는 윗당산으로 이동하여 제관, 무당에 의해 행해진다. 옛날 도당굿은 저녁나절 시작하여 밤 깊도록 12거리 굿을 했다하나 이번 도당굿 놀이에서는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축관에 의해 축문이 독축되고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이렇게 삼헌관에 의해 제가 엄숙히 지내진후 바로 무당굿으로 들어가게 된다. 통상 이곳 소하리를 비롯하여 경기도 지방의 도당굿에서는 당주집에서 당주굿을 먼저하고 당굿을 하는것이 예의이나 그것을 과감히 생략하고 바로 당굿으로 들어갔다.

당굿도 시간관계상 부정, 가망, 상산, 불사, 질성, 성주, 조상, 창부, 대감, 서낭, 군웅, 뒷전의 12거리 중에서 한 두 거리만 선별하여 잠깐 보여주고 바로 주민과 함께 어우러져 춤추고 노는 무감으로 들어가게 된다.

(3) 제3과장 마을 대동굿

셋째과장인 마을 대동굿은 윗당산 도당굿 후의 여흥에 속하는 과장으로서 무감 뒤의 흥청거리는 기분을 당산에서 그대로 마을로 옮겨와 함께 놀고 즐기며 비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풍물패가 마을 우물굿을 치고, 집집마다 돌며 성주굿 및 지신밟기를 해주는데 이때부터는 무당 및 제관의 소임은 다했으므로 그저 풍물 패를 따라 마을을 돌며 소리도 하고 춤도 추면서 주민들의 흥을 돋궈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당이 집집의 고사를 지내주는 일도 있으므로 이것을 소홀히 넘겨서는 안되겠다.

이때는 주로 덕담으로 집주인인 대주나 기주의 무병장수와 만사형통을 빌어주고 재수를 불러준다고 하여 한바탕 놀이판을 벌리는 것이 상례이다.

(4) 제4과장 도당대동놀이

넷째과장인 도당대동놀이 과장은 이 도당굿 놀이의 대미를 장식하는 한바탕 축제 마당이다. 이때는 무당, 제관, 풍물패 마을 주민할것없이 한데 어울려 소리하고 춤추고 뛰노는 순서로서 누구나 거칠것없이 보여준다.

현란한 풍물 가락을 부르고 풍물패는 자신들의 재주를 아낌없이 보여주며, 현란한 풍물 가락으로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도당굿 놀이의 즐거운 추억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덩 - 궁 따궁 덩덩 - 궁 따궁 - 보드라운 쇠가락과 장구가락 그리고 가슴을 치는 북 장단과 심금을 울리는 징소리가 아득히 높은 구름산꼭대기까지 울려 퍼지도록 하는 것이다.

- 김화중 (78세 소하동)
- 김선화 (89세 소하동)

4. 발굴·재현에 고증을 해주신 분들

- 박창래 (69세 소하동)
- 김석환 (73세 소하동)
- 원이쁜 (62세 소하동)